

- 주요 뉴스: 미국, 중국과 무역협상 개시. 뉴욕 연은의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둔화
 - ECB 주요 인사, 완화적 통화정책이 종료 시점에 근접. 인플레이션 추이가 중요
 - 중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세 지속. 수출 역시 관세 영향 등으로 증가세 둔화
 - 일본 이시바 총리, 금리상승 지속 시 지출계획 압박. 1/4분기 GDP(수정치)는 상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美中 무역협상 관련 기대 등이 영향

주가 상승[+0.1%], 달러화 약세[-0.2%],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對中 수출통제 완화 가능성,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美中 무역협상에 따른 관망 분위기 가운데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요 국제금리의 하락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뉴욕 연은의 5월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51.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54.5원, 0.14% 하락). 한국 CDS 하락

		6/9일	6/6일	전일대비			6/9일	6/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05.9	6,000.4	+0.09%	국채 금리 10y	미국	4.47%	4.51%	-3bp
	유럽	553.24	553.64	-0.07%		독일	2.57%	2.58%	-1bp
	중국	3,399.8	3,385.4	+0.43%		영국	4.63%	4.64%	-1bp
	일본	38,089	37,742	+0.92%	CDS 5y	한국	27bp	28bp	-1bp
	한국	2,855.8	휴장	+1.55%		중국	47bp	48bp	-1bp
환율	달러지수	99.00	99.19	-0.19%	위험 지표	EMBI+	-	371	-
	유로화	1.1422	1.1397	+0.22%		VIX	17.16	16.77	+2.33%
	엔화	144.57	144.85	+0.19%		WTI유	65.29	64.58	+1.10%
	위안화	7.1794	7.1926	+0.18%	원자재	구리	492.5	484.8	+1.59%
	원화	1,356.4	휴장	+0.15%		금	3,326.2	3,310.4	+0.4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중국과 무역협상 개시. 뉴욕 연은의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둔화

- 블룸버그, 로이터 등에 따르면 양국의 무역 관련 고위급 인사들은 런던에서 회의를 시작.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및 중국인 유학생 차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
- 백악관의 해시 경제자문위원장은 이번 회의의 목적이 중국이 얼마나 진지한지 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약속을 나누는 것이라고 발언. 아울러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자국의 수출 통제 역시 완화되기 원한다고 첨언.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보고를 받았으나 중국이 쉽지는 않다'고 언급
- 시장에서는 양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일정 수준 서로에 대해 수출통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 다만 미국은 자국 뿐 아니라 동맹국도 공급망에서 중국과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어, 양국의 일시적 휴전은 가능하지만, 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Eurasia Group)
- 한편 이날 뉴욕 연은은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 이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전월(3.6%) 대비 떨어졌고, 3년 및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모두 하락(각각 3.2%→3.0%, 2.7%→2.6%).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
- 아울러 일자리 전망은 개선되었고, 가게 재정에 대한 전망은 혼조. 설문조사에서 1년 후 임금 상승을 기대한다는 대답은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 1년 후 가게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는 응답자가 늘었으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대답은 감소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공화당, 감세법안의 주요 개정 공개할 계획. 대체로 기존 내용 유지 예상

-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주 감세법안의 주요 개정 사항을 제안할 전망. 재정위원회는 건강보험프로그램의 예산 절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세액공제 한도도 축소할 가능성. 다만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감세법안이 대체로 기존의 내용을 유지할 것이며, 일정 역시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Morgan Stanleys와 Goldman Sach, 미국 증시에 보다 낙관적인 전망 제시

- Morgan Stanley의 마이클 월슨 스트래티지스트는 주요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S&P500의 목표치를 6500(현재 6006)로 제시. Goldman Sachs의 데이빗 코스틴 스트래티지스트는 단기 위험이 존재하나 증시 친화적 정책과 소프트 데이터의 개선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 다만 Deutsche Bank는 경제 성장 둔화, 자본조달 비용 증가의 장기화 등으로 내년 미국 기업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Citi는 9월 연준의 첫 금리인하를 예상하며, 금년과 내년 각각 총 5회의 금리인하를 예상

■ ECB 주요 인사, 완화적 통화정책이 종료 시점에 근접. 인플레이션 추이가 중요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인 카지미르 위원은 금년 여름 약간의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금리인하 사이클은 거의 막바지 국면이라고 언급.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인 부이치치 위원 역시 인플레이션이 기대대로 2% 수준에서 진정되면 금리인하는 거의 종료될 수 있다고 발언

■ 중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세 지속. 수출 역시 관세 영향 등으로 증가세 둔화

-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비 0.1% 내려 4개월 연속 하락. 생산자물가지수(PPI)도 3.3% 떨어져 32개월 연속 내림세. 당국의 경기부양책 및 소비촉진 노력에도 경기침체 우려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한편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8% 증가하여 전월(8.1%) 및 예상치(5.0%) 하회. 세부적으로 對美 수출이 34% 급감했는데, 이는 미국의 관세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 수입도 3.4%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는 1032억달러 흑자 기록

■ 일본 이시바 총리, 금리상승 지속 시 지출 계획 압박. 1/4분기 GDP(수정치)는 상향

- 이시바 총리는 금리상승이 지속되면 이자지출이 늘어 정부의 지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 한편, 1/4분기 GDP(수정치)는 연율 0.2% 감소를 기록, 속보치(0.7% 감소) 대비 상향. 이번 결과는 민간소비 및 재고의 개선에 기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1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NFIB 중소기업 경기낙관지수, 유로존 6월 Sentix 투자지신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트럼프, 관세 보다 광범위한 권력 남용 가능성이 더 큰 문제 - Financial Times

(Donald Trump's tariff calamities are the least of it)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태는 그 어떤 정책보다 미국의 개방성과 번영에 더 큰 위협. 특히 시위 진압에 군대가 배치되고, 트럼프 생일에 도심 탱크 퍼레이드를 개최하는 등 어떠한 저항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한편, 다음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심각한 경제적 혼란으로 정부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현 상황은 지속될 소지
- 첫째,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자유무역주의자 혹은 재정 관련 매파의 입지가 약해졌다는 의미. 둘째, 의회에 트럼프 정책에 저항하는 공화당 의원이 부재. 셋째, 연방 법원의 대통령 권한 남용 금지 판결에도 많은 법률들은 광의적 해석이 가능

■ 일본 경제, 무역 불확실성 느린 국내 수요 회복 등으로 기술적 경기침체 위험 상존 - WSJ

(Japan's Economy Remains at Risk of Technical Recession, Data Shows)

- 1/4분기 실질 GDP는 수출 부진이 국내 수요 회복을 상쇄하며 0.2%(연율) 감소. 아울러 관세와 무역 관련 위협이 수출과 산업생산에 타격을 주고, 물가가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가계 지출 부진과 임금 상승률 둔화를 유도할 가능성(Moody's)
- 한편, 2/4분기 GDP는 무역 불확실성 및 산업생산·수출 둔화 지속, 국내 수요의 느린 회복 등으로 0.4% 감소할 전망. 이는 2분기 연속 경기가 위축되는 기술적 경기침체 가능성을 제기(Credit Agricole). 이에 일부 기업의 이익은 상당 수준의 감소가 예상되며, 일본은행의 금리인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아시아 신흥국 채권 수요 급증, 해당국 통화 강세·금리인하 기대 등에 기인 - 블룸버그

(Global Demand Jumps for Emerging Asia Bonds on Rate-Cut Bets, FX)

- 최근 아시아 신흥국 채권시장에 대규모 글로벌 투자금이 유입. 외국 투자자들은 5월 말레이시아 국채를 29억달러 매수(13년 10월래 월간 최대 규모), 한국 상장 채권은 2년래 최장의 순매수를 기록 중. 아울러 4월 이후 태국과 인도네시아 채권을 각각 17억달러, 21억달러를 매입하며 3분기 만에 최대 자금 유입 예상
- 이는 미국 예외주의 및 달러화 약세 우려로 인한 아시아 신흥국 통화 강세와 무역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 대응을 위한 금리인하 기대 등에 기인. 특히,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FTSE 러셀 세계 국채 지수 편입 가능성 등으로 전망이 개선. 또한, 美中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 결과 기대도 아시아 지역 투자 심리 향상에 일조

■ 일본의 중소 기술기업, 외국자본의 인수 표적으로 노출 - Financial Times

(Can Japan hold on to its 'indispensable' companies?)

- '23년 이후 M&A 규제 완화와 엔화 약세, 저렴한 기업가치 등으로 일본의 많은 중소 기술기업이 외국자본의 표적으로 노출. 해당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 광섬유, 커패시터 등에서 여전히 기술 우위를 보유하고 있고, 전략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역할을 수행
- 외국계 자본의 인수는 산업 재편과 해외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술 유출과 안보 우려도 제기. 일본은 플랫폼 기반의 미국·중국식 모델보다는 일본만의 정밀·고부가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 내 '대체 불가능성' 유지가 과제

■ 미국 경제지표의 경기침체 위험 감소 시사, 연준의 금리인하 근거 부족을 의미 - 블룸버그

(Data still don't make anything easy for the Fed)

■ 미국 달러화 전망, 다양한 요인이 좌우. 무역적자 증가만으로 하락 예상은 비합리적 - WSJ

(Will America's Unbalanced Trade Doom the Dollar?)

■ 스위스의 마이너스 금리 재진입 전망, 유로존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고 - 블룸버그

(Negative Swiss Rates Send a Warning to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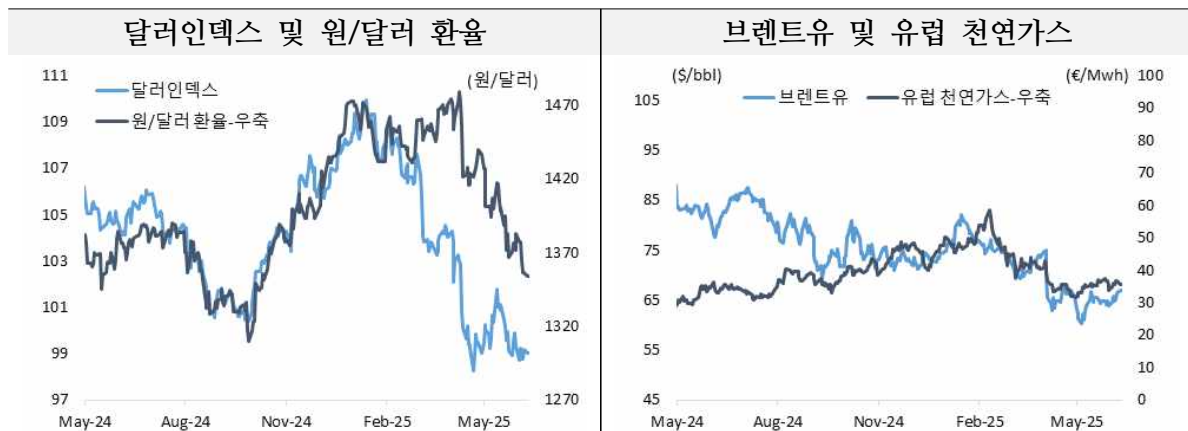
■ 홍콩 정책금리의 급락, 세계 금융시장에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Hong Kong rate slump is a warning light for global 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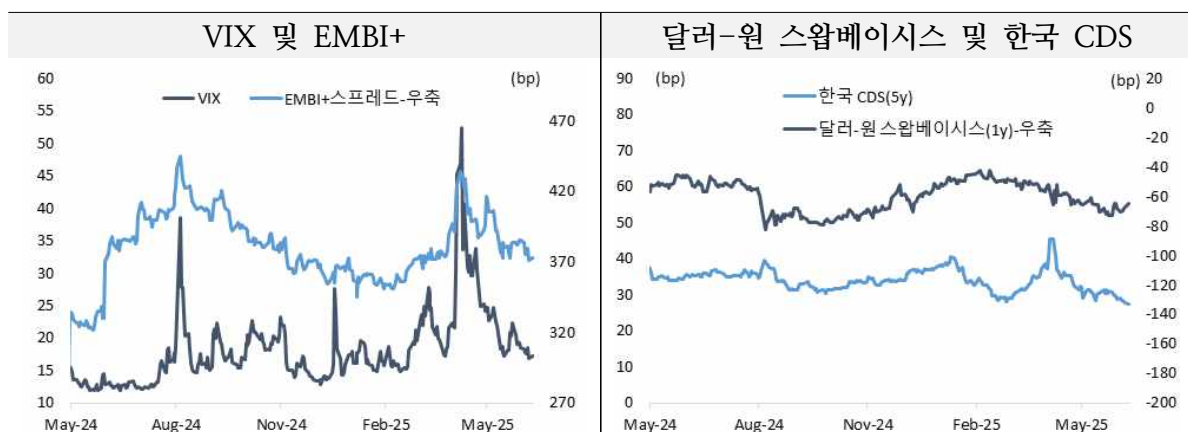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